

KERI

#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998년 4월

한국경제연구원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제1장 국내경제

1. 경기
2. 산업활동
3. 민간소비
4. 설비투자
5. 건설투자
6. 수출입
7. 국제수지
8. 물가
9. 통화·금융

## 제2장 해외경제

1. 성장 및 교역
2. 원유 및 원자재 가격
3. 주요통화 및 환율

## 제3장 2/4분기 및 연간 경제전망

1. 성장 및 고용
2. 물가
3. 수출입 및 국제수지
4. 금리 및 환율

## 제4장 경제위기타개를 위한 경상수지 흑자 방안

1. 기본방향과 기대효과
2. 흑자전망 및 실현 가능성
3. 지원방안
4. 부표 및 도표

##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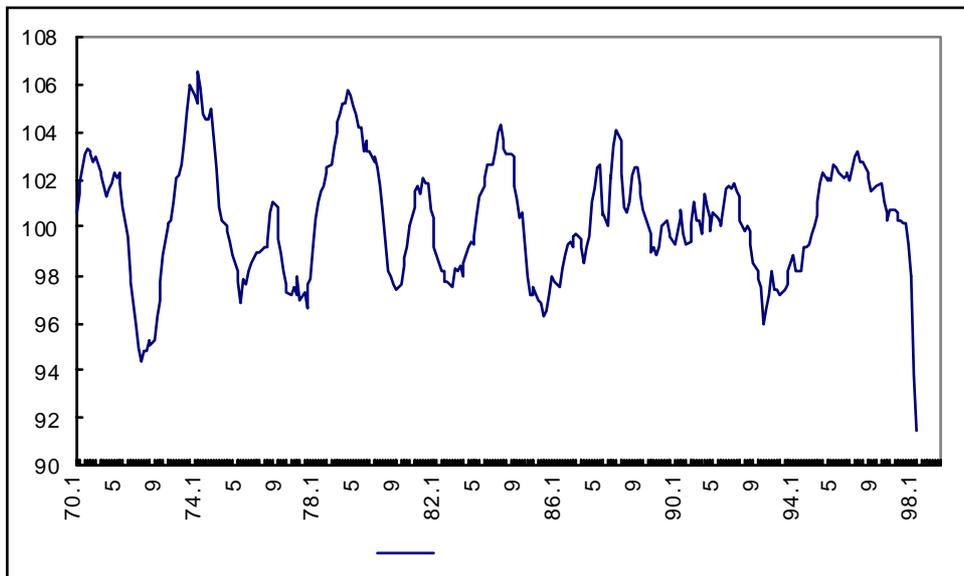
1. 경제정책정보
2. 주요경제통계

# 제 1장 국내경제

## 1. 경기

- 외환위기가 본격적으로 실물부문에 파급되면서 경기가 70년 이후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음.
-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감소세를 지속, 70년 이래 최저의 수치 기록.
- 선행종합지수도 작년 11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에 따라 경기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

<그림 1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 내수침체의 가속화로 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가동률이 급감하고 실업이 급증.
- 1/4분기 평균가동률이 67.3%에 그침으로써 가동률 통계작성 후 최저치를 기록.
- 계절조정 실업률은 분기중 4.7% 로 급증, 실업인구가 135만명을 넘어섬.

<표 2 > 최근 가동률및 실업률 동향

(%)

	1996년	1997년				199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3월	1/4
평균가동률	81.0	79.0	81.1	80.6	79.0	79.9	67.9	69.0	65.2	67.3
실업자(천명)	425	646	550	470	561	556	934	1,235	1,370	1,102
실업률(계절조정)	2.0	2.5	2.6	2.4	2.0	2.6	4.1	4.7	5.3	4.7

자료: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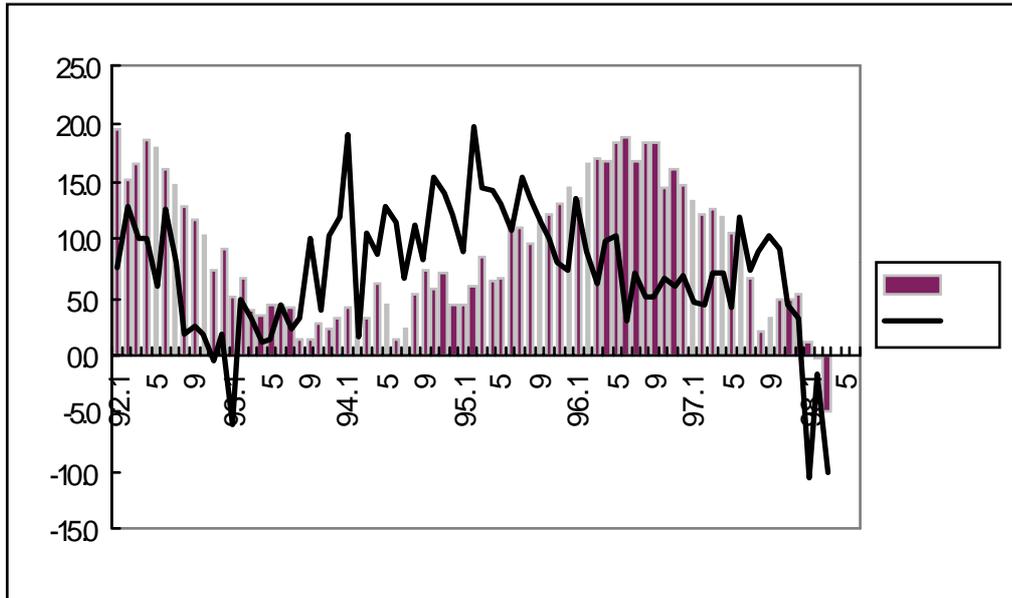
- 1월에 비해 2월의 지표들은 지수상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1월의 설연휴로 인한 조업일수가 적었기 때문임.

## 2. 산업활동

- 내수침체가 가속화되면서 1/4분기중 생산, 출하, 재고가 모두 마이너스증가율로 반전됨.

- 내수부진으로 산업생산은 7.8% 감소.
- 출하 역시 내수급감으로 7.5% 감소
- 재고의 경우, 생산감소로 4.9% 감소.

<그림 2> 산업생산과 재고추이



- 부문별로는 내수급감으로 중화학공업, 경공업 모두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 등 일부품목이 수출에서 호조를 보임.

- 1/4분기중 내수출하는 22.1% 감소한 반면 수출출하는 30.6% 증가.
- 외환위기로 내수침체가 가속화된 반면 수출은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기인.

<표 2> 최근 생산·출하 동향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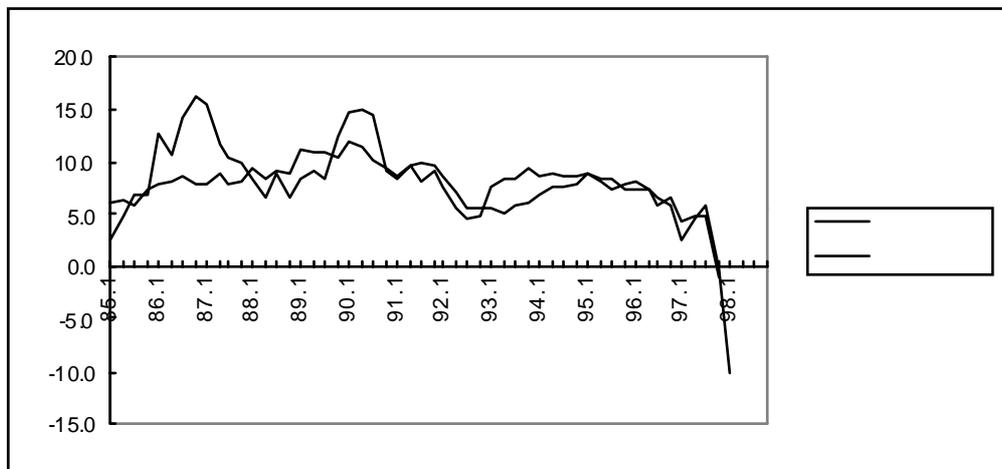
	1996년	1997년				연간	1998년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3월	1/4
생산	7.3	5.4	7.7	9.9	5.5	6.9	-10.0	-1.7	-10.1	-7.9
중화학	10.5	9.3	12.7	13.9	9.2	11.2	-0.3	0.0	-0.4	-5.5
경공업	-1.0	-5.9	-6.2	-5.1	-6.0	-5.0	-19.7	-10.4	-17.1	-16.0
출하	7.6	1.6	7.3	9.0	3.2	5.0	-0.0	-3.7	-10.4	-7.5
내수	6.9	1.4	4.0	2.6	-3.5	1.0	-20.4	-19.3	-25.9	-22.1
수출	9.7	2.4	17.0	23.7	21.3	16.1	24.0	36.0	31.2	30.6

자료: 통계청

### 3. 민간소비

- 97년 4/4분기 민간소비는 내구재소비(-14.6%)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1.0%감소, 80년 4/4분기(-3.0%)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증가율 기록.
- 98년 들어서도 도소매판매, 내수용소비재 출하 등 소비관련지표들이 큰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1/4분기중 민간소비 감소폭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추정.
- 이는 외환위기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데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자산소득이 감소하고, 물가상승과 근로소득감소로 구매력이 상당히 낮아진데 기인.

<그림 3> 도소매판매와 내수용소비재출하 추이



- 부문별로 1/4분기중
  - 도매부문이 화합물, 석유석탄 그리고 건축재료 등의 부진으로 5.9% 감소.
  - 소매부문은 백화점, 음식료품종합소매의 부진으로 9.9% 감소
  - 자동차·연료부문은 자동차, 차량연료소매의 부진으로 28.0%감소.
  - 내수용 소비재출하는 내구재(승용차 등), 비내구재(남녀기성복, 등유등) 모두 큰 폭의 감소

<표 3> 최근 소비지표 동향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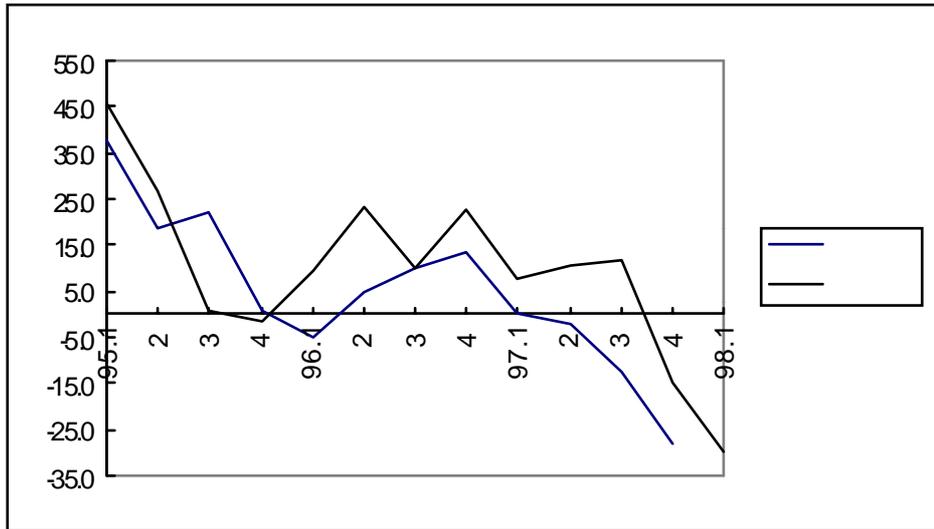
	1996년	1997년				연간	1998년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3월	1/4
도소매판매	7.0	2.5	4.6	5.7	-0.1	3.2	-0.7	-11.4	-10.6	-10.2
도매	4.3	2.0	3.6	4.2	1.9	3.2	-4.4	-5.6	-7.0	-5.9
소매	10.4	6.4	6.5	5.6	0.3	4.5	-0.0	-10.0	-10.0	-9.9
자동차·연료	0.0	-0.2	3.7	11.2	-9.0	-0.7	-27.7	-34.6	-22.2	-20.0
내수용소비재출하	5.9	-3.5	-0.7	2.7	-4.3	-1.5	-10.5	-10.4	-21.7	-19.6
내구재	5.9	-3.5	10.9	16.4	-2.5	5.0	-23.2	-25.5	-27.0	-25.7
비내구재	5.9	-3.4	-5.0	-3.1	-5.2	-4.4	-17.0	-15.2	-10.6	-17.0
민간소비	6.0	4.2	4.0	4.0	-1.0	3.1	-	-	-	-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4. 설비투자

- 97년 4/4분기 설비투자는 기계류(-20.8%), 운수장비(-43.7%) 모두 감소폭이 확대됨에 따라 28.2% 감소.

<그림 4> 설비투자와 국내기계수주 추이



- 1/4분기중에도 국내기계수주등 설비투자관련 지표들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설비투자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적 성격을 지닌 국내기계수주는 민간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공공부문의 발주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39.3% 감소하여 전년 4/4분기(-15.2%)보다 감소폭이 두배이상 확대.
  - 기계류수입액과 기계류내수출하도 각각 52.9%, 35.1% 감소하며 감소폭이 크게 확대됨.
- 이처럼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고금리, 금융시장의 경색 등으로 민간부문의 투자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재정긴축운동에 따른 정부지출의 대폭 삭감으로 공공부문의 투자도 부진한데 기인.

<표 4> 최근 투자지표 동향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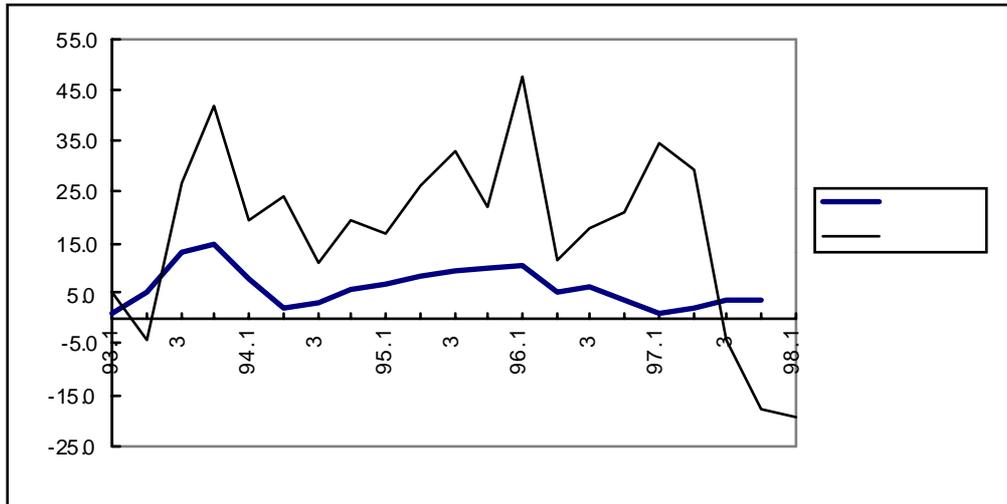
	1996년	1997년				199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3월	1/4
국내기계수주	16.5	7.7	10.4	11.3	-15.2	3.3	-31.1	-20.0	-50.6	-39.3
공공	16.0	7.3	4.2	29.7	-36.0	-2.5	-24.0	-46.0	-93.3	-66.5
민간	16.6	7.9	11.0	0.6	-9.0	4.6	-32.0	-23.5	-36.3	-31.3
기계류수입액	-0.7	-13.9	0.4	-34.6	-30.2	-22.0	-56.3	-46.4	-55.2	-52.9
설비용기계류내수출하	12.6	4.5	7.4	-6.0	-16.0	0.0	-32.0	-30.6	-40.9	-35.1
설비투자	0.3	-0.2	-1.0	-12.7	-20.2	-11.3	-	-	-	-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5. 건설투자

- 97년 4/4분기 건설투자는 경기침체로 주택, 공장 등 건물건설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3.7%의 미미한 증가세에 그침.

<그림 5> 건설투자와 국내건설수주 추이



-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수주감소세가 지속되어 97년 4/4분기 -17.8% 98년 1/4분기 -24.5%의 증가율을 보이며 감소세가 확대.

○ 그동안 증가세를 보이던 공공부문의 경우도 SOC투자 감소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  
(추경예산안에 나타난 98년 SOC투자는 9조 9,37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9%감소, 전년예산보다 2.8%감소한 수준)

- 이처럼 건설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데다 재정긴축운동에 따른 정부지출의 대폭 삭감으로 공공부문의 투자도 부진한데 기인.

<표 5> 최근 건설투자지표 동향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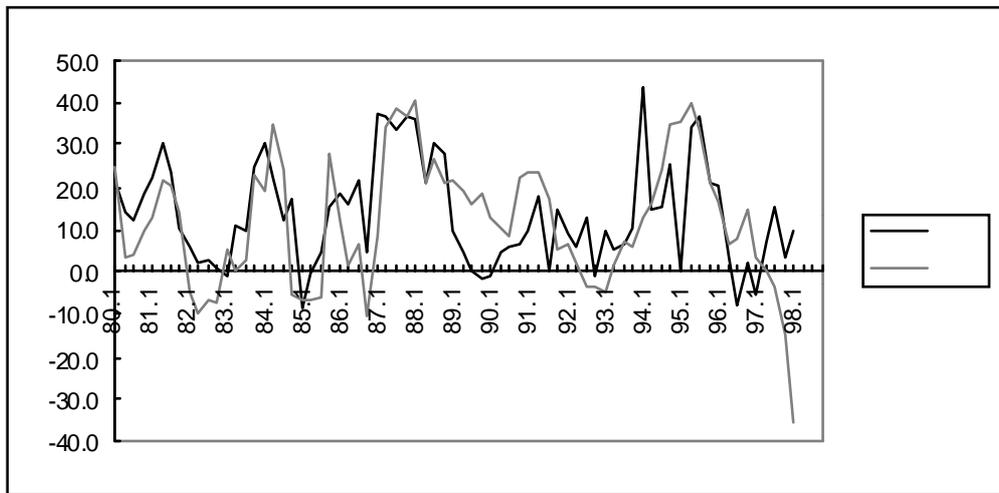
	1996년	1997년				연간	1998년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3월	1/4
국내건설수주	21.4	34.4	29.3	-4.3	-17.0	4.7	-19.3	-19.9	-29.9	-24.5
공공	44.7	49.6	9.5	-7.5	-5.0	6.3	-0.7	-2.5	-13.9	-7.9
민간	9.1	23.6	10.7	-11.0	-37.3	-6.5	-32.9	-31.5	-60.4	-45.0
건축허가면적	-3.0	-3.4	3.6	-15.1	12.1	-0.4	-16.0	-7.3	-30.6	-22.9
건설투자	6.1	0.0	1.0	3.0	3.7	2.7	-	-	-	-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6. 수출입

- 수출은 증가세, 수입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수출입거래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 수출은 환율상승과 금수출에 힘입어 1~3월중 325억달러를 수출하여 전년동기비 9.3% 증가.  
(금수출 1~3월중 : 18억달러)
- 반면 수입은 소비, 투자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수입이 모두 큰폭으로 감소, 239.1억달러 수입에 그쳐 전년동기비 35.5%감소. 원자재의 경우는 외상수입(유전스)곤란으로 수입감소폭 확대.

<그림 6> 수출입(통관기준)증가율 추이



- 부문별로는
  - 수출의 경우 중화학수출은 호조를 보인 반면 경공업수출은 오히려 감소.  
(경공업수출부진 이유: 수년간 지속된 구조조정으로 생산기반자체가 축소된데다 자금난으로 부도가 급증한데 원인.)
- 지역별로는
  - 대선진국 수출은 호조를 보인 반면 대개도국 수출은 동남아지역의 수출부진으로 저조.  
(1.1~3.20중 대선진국수출 30.5%, 대개도국수출 0.0%, 대아세안수출 -28.4%)

<표 6> 최근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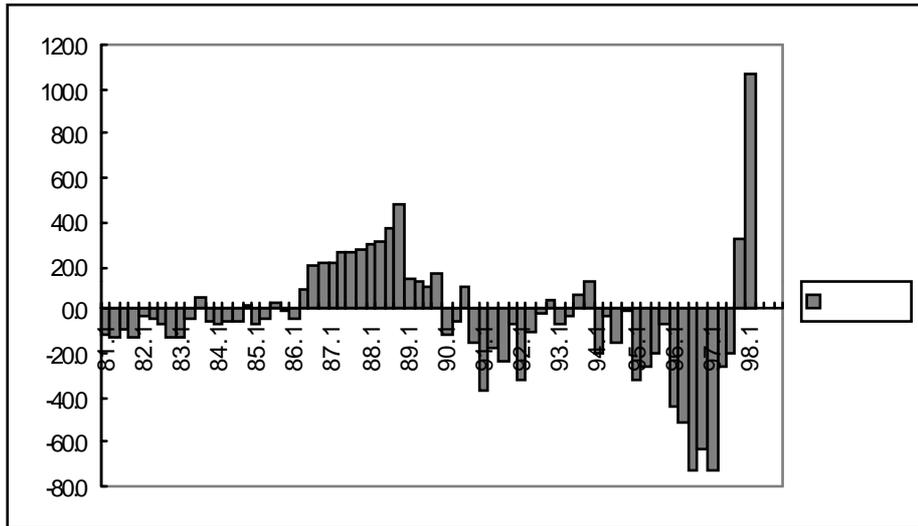
(백만달러, 전년동기비,%)

	1997년	1998년			
	연간	1월	2월	3월	1/4
수출(총관)	136,164	9,010	11,246	12,050	32,321
증가율	5.0	-0.2	20.1	6.5	0.7
중화학제품	5.9	-0.4	15.6	7.6	7.6
경공업제품	0.6	-14.6	0.5	-6.6	-6.6
수입(총관)	144,616	7,534	0,000	0,376	23,910
증가율	-3.0	-39.0	-30.3	-35.0	-35.4
원자재	2.2	-36.0	-33.3	-35.2	-35.1
자본재	-10.3	-41.9	-23.0	-36.3	-34.3
소비재	-7.4	-47.4	-35.7	-37.3	-40.4

## 7. 국제수지

- 그동안 적자추세를 보이던 경상수지가 대외이자부담 증가로 소득수지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상품과 서비스수지의 흑자에 힘입어 큰폭의 흑자를 시현.

<그림 7> 경상수지와 상품수지 추이



- 1/4분기중 경상수지는 106.9억달러 흑자
  - 상품수지는 환율상승과 금수출의 영향으로 수출이 증가한 반면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여 96.7억달러 흑자.
  -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의 흑자(5.6억달러)에 힘입어 5.7억달러 흑자
  - 소득수지는 2,3월 들어 대외이자지급이 증가하면서 7.2억달러 적자.
  - 경상이전수지는 해외교포의 국내송금으로 11.8억달러 흑자.
- 자본수지는 유출초에서 유입초로 반전되면서 1/4분기중 13.9억달러 순자본유입.
  - 급박한 위기상황이 진정되면서 외국인의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 ( 외국인 증권투자수지 25.6억달러(97년 1/4분기) -->43.0억달러(98년 1/4분기) )

<표 7> 최근 국제수지

(억달러)

	1996년	1997년					1998년			
	년간	1/4	2/4	3/4	4/4	년간	1월	2월	3월	1/4
경상수지	-230.0	-73.0	-26.0	-19.9	32.7	-96.2	30.6	39.4	37.0	106.9
상품수지	-149.6	-55.3	-9.0	-1.3	26.0	-39.7	20.5	30.5	37.7	96.7
서비스수지	-61.0	-12.3	-0.6	-12.2	3.0	-29.3	5.0	0.3	0.4	5.7
소득수지	-10.1	-5.0	-0.6	-6.2	-6.9	-26.0	-0.3	-2.0	-4.1	-7.2
경상이전수지	-0.5	-0.4	0.1	-0.1	9.0	0.6	5.3	3.4	3.0	11.0
자본수지	233.3	54.0	60.6	12.0	-81.0	54.4	0.5	3.2	10.2	13.9
직접투자수지	-23.4	-5.2	-2.3	-6.1	-5.0	-19.5	-0.0	-1.3	-2.2	-4.3
증권투자수지	161.0	25.6	57.5	54.6	10.0	147.6	7.2	22.1	13.6	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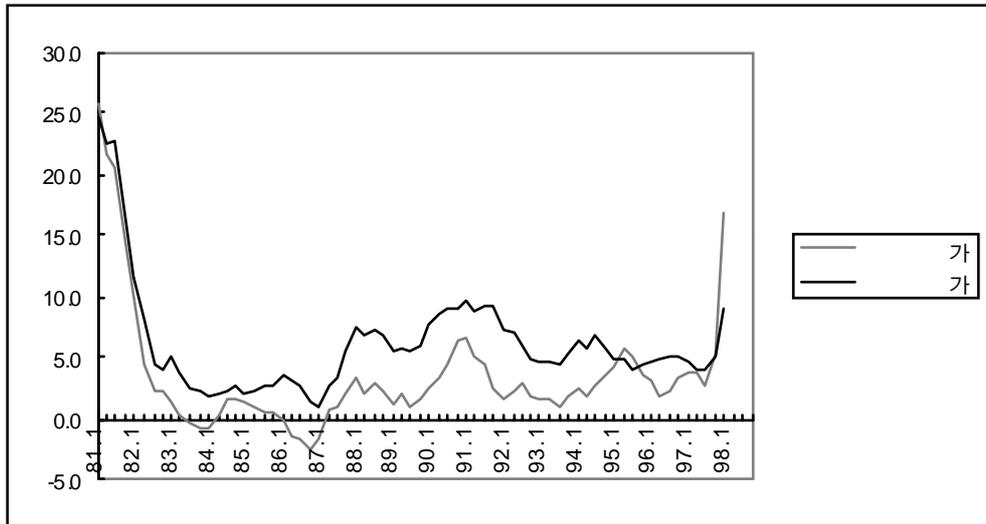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8. 물가

-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1~3월중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 수입원자재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생산자물가가 대폭 상승.

○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9.0% ,생산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6.8% 상승.

<그림 8 > 물가상승률 추이



- 월별로 살펴보면

- 12월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던 물가가 2월 중순부터 환율안정, 국제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석유류가격이 감소하면서 3월 들어 오름세가 다소 둔화.  
(3월중 석유류제품가격 15.1%하락)

- 부문별로 보면 1~3월중

- 환율의 영향을 받은 공산품부문과 도시가스, 택시, 버스등 공공요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3월 부터 그 오름세가 전부문에 걸쳐 둔화되는 추세임 .

<표 8> 최근 물가 추이

(전년동기비,%)

	1997년		1998년			
	4/4	연간	1월	2월	3월	1/4
소비자물가	5.1	4.5	0.3(2.4)	9.5(1.7)	9.0(-0.2)	9.0(3.9)
농림수산물	5.3	3.0	6.0(1.5)	4.9(0.7)	5.9(0.5)	5.6(2.7)
공산품	5.1	4.3	11.5(3.5)	14.4(2.9)	12.5(-1.0)	12.0(4.6)
공공요금	6.4	5.1	0.2(2.6)	10.2(1.9)	11.2(1.7)	9.0(6.2)
개인서비스	5.2	5.3	7.9(2.5)	0.1(0.0)	7.3(0.7)	0.1(4.0)
생산자물가	5.3	3.0	15.2(4.9)	17.7(2.0)	17.5(-0.3)	16.0(7.2)
농림수산물	0.3	1.6	2.0(3.0)	0.0(0.7)	2.6(0.0)	2.1(4.5)
공산품	5.9	4.2	17.0(5.2)	20.3(2.5)	19.9(-0.5)	19.1(7.2)
전기, 수도 및 가스	0.7	4.6	16.7(2.5)	10.7(1.0)	10.0(0.0)	17.0(3.5)

주: ( )는 전월비

## 9. 통화 · 금융

- 통화증가율이 금년 들어 둔화 지속.

- 3월 본원통화는 말잔기준으로 22조 351억원으로 9.2% 증가하여 1/4분기 본원통화공급 예시 한도(23조 5,800억원)보다 적게 공급.
-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확대로 작년 12월 중 14.7%까지 높아졌던 MCT 증가율이 금년들어 통화의 긴축적인 운용으로 3월중에는 9.6%로 크게 둔화.
- 신용경색과 더불어 신중적립신탁, MMF 등 단기 고수익상품으로의 지금이 이동하면서 총통화(M2) 증가율 둔화가 빨라짐.

< 표 9 > 주요통화지표 증가율

(평잔기준, 전년동기대비, %)

	1996년	1997년				1998년		
	연간	10월	11월	12월	연간	1월	2월	3월
MCT	21.7	13.0	13.3	14.7	15.3	12.7	10.5	9.6
본원통화	-12.2	-10.7	-3.4	-12.5	-12.5	4.4	-7.0	9.2
총통화(M2)	16.2	17.9	18.4	21.1	19.2	16.1	14.1	13.9
준유동성(M3)	19.0	15.9	16.0	15.9	16.3	15.1		

주: 본원통화는 말잔기준.

자료: 한국은행

- 상품수지의 대폭 흑자, 외국인주식투자자금유입, 금융기관 단기외채의 만기연장 협상 타결, 국가 신용등급 상향조정, 가용 외환보유고의 확대 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이 안정됨.

< 표 10 > 외환 · 금융시장의 안정 요인

상품수지	98년 1/4분기 기준 통관기준으로 96.9억달러 흑자(전년동기 73.3억달러 흑자)
외국인 주식투자	98년 1~2월 중 24.5억달러 순유입(전년동기 5.1억달러)
단기외채 만기연장	3.11 현재 219억 4천만달러 만기연장(대상채무대비 94.0%)
국가신용등급	98.2.2 英 피치 IBCA社 5단계상향조정 (B- → BB+) 98.2.17 美 S&P社 3단계상향조정 (B+ → BB+)
가용 외환보유고	72.6억달러(97.11말) → 241.5억달러(98.3말)

○ 금융시장의 안정에 따라 환율은 1,300원대에서 안정되는 추세.

○ 금리는 지난 연말보다는 많이 낮아 졌지만 아직도 18%내외수준의 고금리수준.

< 표 11 > 최근 환율과 시장금리 추이

	97.11말	97.12말	98.1말	98.2말	98.3말	98.4.10
원화환율(원/달러)	1,164	1,415	1,573	1,640	1,379	1300
금리(1일, %)	12.1	30.1	25.9	23.3	22.0	21.6
회사채수익률(3년, %)	15.1	29.0	19.5	20.5	19.3	17.9

자료: 한국은행

## 제 2 장

# 해외경제

### 1. 성장

- 98년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9월 전망치인 4.3%에 비해 1.2%p 낮아진 3.1%로 전망
  - 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일본 및 한국 등 NIEs의 성장률 저하에 기인
  
- 선진국은 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을 전망
  - 미국과 영국은 잠재성장률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
  - 유럽국가들은 97년 중의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겠으나 회복 속도가 다소 지체될 것으로 보임
  - 일본은 주변 아시아국가들의 수입수요감소, 수출상품 가격경쟁력 하락 등으로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 개도국은 98년 4.0%, 99년에는 5.3% 성장이 예상
  - 아시아 특히, ASEAN국을 비롯한 대부분 신흥개도국의 성장은 둔화 예상
  - 반면, 아프리카 지역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가. 미국

- 미국경제는 98년과 99년에 각각 2.9%와 2.2%의 성장이 예상
  - 미달러화 강세 및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 등에 힘입어 1998년과 1999년의 물가상승률은 당초 전망보다 더욱 낮아진 1.6%와 1.8% 상승에 그칠 전망
  - 실업률은 1998년 중 4.8%로 1973년(4.9%) 이후 25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1999년 중에는 경제성장세 둔화를 반영하여 5.0%로 소폭 높아질 전망

<표> 세계경제전망

	1995	1996	1997		1998		1999	
			IMF	OECD	IMF	OECD	IMF	OECD
<성장>								
세계	3.6	4.0	4.1	-	3.1	-	3.8	-
미국	2.0	2.8	3.8	3.8	2.9	2.7	2.2	2.1
일본	1.5	3.9	0.9	0.9	0.1	-0.3	1.8	1.3
한국	8.9	7.1	5.5	4.9	-0.8	-0.2	4.1	4.0
-----								
선진국	2.5	2.7	3.1	3.1	2.5	2.4	2.5	2.5
EU	2.5	1.8	2.7	2.6	2.7	2.7	2.8	2.8
개도국	6.0	6.6	5.8	-	4.0	-	5.3	-
<교역>								
교역량 신장률	9.5	6.7	9.5	9.8	6.6	7.1	6.1	7.0
<단기금리>								
미국	-	5.0	-	5.1	-	5.1	-	5.1
일본	-	0.6	-	0.6	-	0.8	-	0.6
독일	-	3.3	-	3.3	-	3.7	-	4.0

자료 : IMF, Interim Assessment of the World Economic Outlook 1998.4  
 OECD, OECD Economic Outlook 1998.4

나. 일본

- 97년초 경기회복 기미가 있었으나 2/4분기 중 소비세 인상, 공공지출 축소 등의 국내요인과 하반기에는 아시아 경제위기, 국내금융제도에 대한 우려, 주가하락 등에 의해 성장이 둔화하여 98년과 99년에 각각 0.1%와 1.8%의 성장률이 예상
  - 경기침체의 심화에 따라 당초 전망(98년중 0.8%, 99년중 0.5%)보다 낮아진 0.5%와 0.0%의 초저인플레이션이 지속
  - 실업률은 98년 및 99년 중 당초 전망(3.4%, 3.3%)보다 높은 3.5%, 3.6%를 기록하여 고용사정이 전후 최악의 상태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

다. EU

- 98년중 15개 EU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은 97년 중의 2.7%와 같은 수준으로 예상되며, 99년에는 2.8%로 확대할 전망

- 당초에 비해 0.1~0.2% 포인트 낮아진 1.8~1.9% 의 낮은 물가상승률 유지가 예상되며 EU회원국간 물가상승률 격차도 계속 좁아져(97년 4.4%에서 98년 3.2%) 회원국간 경제동질화가 더욱 진전될 전망
- 견실한 경제성장세 지속으로 97~99년중 EU 전체로 340만명의 신규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도 97년중 10.7%에서 98년중에는 10.2%로 하락할 전망

## 2. 세계교역

- 98~99년중 교역신장률은 아시아 경제위기에 따라 94~97년중 평균신장률(8.8%)에 비해 크게 낮은 6.6% 및 6.1%로 둔화 예상
  - 미·일간 경상수지 불균형은 1998년과 1999년 모두 당초 전망보다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이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당초 전망과 비슷할 것이나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내수 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둔화로 당초 전망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인

## 3. 국제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 국제금리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안정과 경기침체 방지를 위한 선진국의 금융완화정책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안정세가 예상
  -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다시 상승세를 탈 2000년 이후 상승세로 돌아설 전망
  - 미국의 금리인상은 국제 투자자금의 미국내 환류를 가속화시켜 아시아 금융위기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금리인상 자제가 예상
  - 일본은 경기부양과 증시회복 및 은행의 수지 개선을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하여 저금리 정책기조 유지 전망
  - 독일의 경우 99년 출범할 유럽통화연합(EMU)과 관련하여 금리수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금년 중반경 한차례 정도의 금리인상 예상

- 미달러화는 아시아 통화불안 및 미국경제의 호조 등을 배경으로 강세기조를 한동안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금년 하반기 이후 미국경기의 둔화와 더불어 강세기조가 서서히 꺾일 전망
- 엔화의 경우 일본의 대규모 무역흑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자본유출로 인해 약세기조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
  - 하반기에는 일본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미국 경기둔화가 가시화 될 경우 엔화가 소폭의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 등 금융시스템 불안이 단기간내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엔화의 강세 폭은 제한적일 전망
- 99년 유럽통화통합 이후 유로화 강세 예상
  - 유럽경기가 상승국면에 있는 데다, 금리수렴조건 충족과 마르크화 강세를 위해 통화통합 출범 이전에 독일의 금리상승이 예상되기 때문
  - 유로 출범후 참가국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담당할 유럽중앙은행(ECB)이 물가안정을 최우선시하여 금융긴축에 나설 가능성 제기됨
- 이라크의 석유 수출 재개를 계기로 공급과잉 확산과 아시아 경기위축으로 역내 석유수요의 부진으로 국제원유가는 하락세

<표> 국제원유가 전망 (Dubai원유 기준)

	1997년(실적)		1998년(전망)				
	4/4	연평균	1/4	2/4	3/4	4/4	연평균
\$/bbl	18.39	18.30	12.25~12.75	11.5~13.0	12.5~14.0	13.5~15.0	13.70

자료 : 에너지 동향 98.4 , 에너지경제연구원

- 지난 3월 중순을 기준으로 올해 국제 원유가격은 두바이원유 기준으로 1997년 평균대비 배럴당 \$4.50 낮은 \$13.70/b로 전망

○분기별로는 1/4분기가 전분기 대비 4~5달러 하락, 비수기인 2/4분기와 3/4분기에 초과공급 상황 확대로 추가적 가격하락이 예상

○그러나 성수기로 접어드는 4/4분기에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요확대와 재고소진 등에 따른 소폭 상승세 전망

## 제 3장

# 2/4분기 및 연간경제전망

### < 요약 >

- 1/4분기(-2.7%)에 이어 2/4분기중에도 -3%내외(-3.1%)의 국내총생산(GDP)의 감소가 예상되나 하반기이후에는 다소 회복됨으로써 연간성장률은 -0.5%내외로 전망됨.
- 수출입관련 금융경색이 조기에 해소되고 민간경제계가 추진하는 경상수지흑자 확대방안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경우, 98년 성장률은 1.7%내외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전망됨.
- 재정 및 금융긴축으로 인한 자금가용성의 축소와 임금감축 및 실업증대에 따른 내수위축으로 기업의 수출증대노력은 배증할 것이나 98년중 예상되는 수출증가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6.6%에 그칠 전망이다. 다만, 금융경색이 해소되고 수출지원노력이 따르는 경우, 민간경제계가 추진하고 있는 두자리수 수출증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가계부문 소득증가의 둔화, 기업투자의 감소, 재정지출의 둔화 등으로 내수부문은 9% 내외의 감소 예상
- 특히 제조업부문에 대한 설비투자는 97년의 11.3%가 감소한데이어 98년중에도 31.4%의 감소 예상
- 지연되고 있는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하반기이후로 넘어가고 도산 및 실업의 증가와 같은 실물부문의 위축효과가 99년 이후까지 장기화되는 경우, 우리경제의 내년도 성장률은 2%대에 그치는 등 향후 잠재경제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하는데에는 5년이상의 장기간 소요 가능성
- 반면, 98년중 수출증대노력에 의한 경상흑자의 대폭확대(예컨대, 500억불)가 실현되는 경우, 우리경제는 98년4/4분기이후 성장률이 7%내외에 달한 이후 안정적인 성장국면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1. 성장 및 고용

- 98년중 IMF와의 협의에 따른 재정 및 금융긴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우리 경제는 지난해(5.5%)의 성장둔화에 이어 상반기중에는 3%내외의 마이너스성장, 그리고 연간으로는 -0.5%내외의 저성장이 예상된다.
  - 98년중 예상되는 외환유입에도 불구하고 본원통화와 총유동성(M3)의 연간공급규모가 13.5%수준에서 묶여 연중 금융긴축상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상반기중에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지체되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신용경색국면이 심화됨으로써 시중 자금가용성 및 고금리현상 지속 전망.
  - 내수의 급속한 냉각에 따라 수출중심의 불황타개가 불가피하나 대폭 절하된 환율에도 불구하고 수출신장율은 1/4분기의 3.3%(금수출제외)에서, 2/4분기중에는 6.7%로 완만한 회복이 예상된다. 이는 수출단가의 하락과 수출입금융의 경색에 따른 수출애로에 따른 것임.
  - 98년중 내외수부진에 따른 저성장과 금융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과정에서 7~8%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민간경제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상수지흑자확대방안(제4장 참조)에 따르면, 현재의 수출입금융경색이 조기에 해소된다면 대폭절하된 환율을 기반으로 수출증가율을 두자리수로 늘릴 수 있으며 수입감소분을 감안하면 연중 500억불내외의 경상수지흑자의 달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 부문별로 보면, 원화의 큰 폭 절하에도 불구하고 수출입금융상의 애로가 해소되지 않는 한, 98년중 수출 증가율은 국제수지 기준으로 97년에 이어 한자리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내수부문은 실질가계소득의 감소, 기업투자감소, 재정지출의 둔화로 급격한 위축 예상.
  - 수출의 경우 원화가치의 하락에 힘입어 97년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그러나 1/4분기중 수출단가의 하락이 품목별로 30%에 달하는 등 예상보다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97년중 동남아국가들의 외환위기로 타격을 입은 일본 및 동남아 지역에 대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97년에 이어 한자리 수 증가율에 그칠 전망이다.
  - 소비부문은 경기침체, 고용불안확대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데다 임금삭감, 주식

및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구매력의 감소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98년중 민간소비 증가율은 -3%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설비투자의 경우 기업 채산성의 악화, 향후 경기의 불투명 등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크게 위축된데다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노력이 겹침에 따라 -31.5%내외의 큰 폭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사회간접자본확충관련 예산의 축소에 따라 토목 등 기타건설부문이 경제전반에 걸친 긴축기조 영향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경기위축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자재 등 건설원가의 인상으로 건물건설의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투자 전체로는 12%내외의 감소 전망.

## 2. 물가

- 9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분기를 정점으로 차차 낮아지겠으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91년 버블형성기이후 가장 높은 8%대로 예상.

○ 내수부진으로 수요압력이 낮아진데다 에너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이 안정추세를 보이고 IMF의 거시경제 프로그램 달성을 위한 강력한 긴축기조의 경제운영 등의 영향으로 2/4분기이후 물가상승압력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최근 환율상승에 따른 유가인상 등 원화절하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국내물가 전반에 파급되고 있어 연중 물가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

## 3. 수출입 및 국제수지

- 97년 38억불의 적자를 기록한 상품수지는 98년중 300억불이상의 흑자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임. 이는 수입수요의 대폭 감소 예상에 따른 것임.

○ 경기침체, 소비 및 투자위축으로 소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수입의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98년 수입은 97년대비 20%내외의 감소가 예상됨.

○ 수출은 원화환율의 상승 효과가 하반기이후 본격적으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경쟁국 환율의 절하로 인해 경쟁력회복이 반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동남아, 일본 등에 대한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보여 획기적인 수출확대노력이 없는 한, 수출증가율의 큰 폭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상품수지의 대폭 개선과는 달리 서비스 및 이전수지의 적자추이는 98년중에도 이어질 것이나 10억불 내외의 소폭 적자에 그칠 전망이다. 단기외채에 대한 이자지급의 증가로 투자수익의 적자가 예상되나 여행수지의 개선이 기대됨에 따라 무역외수지는 97년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임.
- 98년중 경상수지는 무역수지의 대폭흑자예상에 힘입어 300억달러내외로 예상되어 97년보다 약 400억달러 개선전망.

#### 4. 금리 및 환율

- 연중 긴축통화정책이 불가피함에 따라 국내금융시장에서 1/4분기중 18~20%의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었으나 2/4분기들어 외환시장의 안정에 따라 다소 낮아지고 있음. 이 같은 추이는 하반기중에도 지속되어 15~17%수준의 시장실세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IMF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9%대로 설정하고 이 목표치에 맞게끔 총유동성(M3)을 조절하는 통화긴축정책을 요구.

○2/4분기이후 시장금리는 외환시장안정이 흔들리지 않는 한, 15%~17%를 유지할 것이나 환율의 안정적 절상추이에 따라 하반기이후 추가적 금리인하 가능성 있음.

- 3월이후 외환시장은 공급우위로 변하면서 환율은 1300원/\$대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실질실효환율에 비추어 원화가치는 다소 절하되어 있는 상태로 추가적인 절상가능성은 상존함.

○본원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실질실효환율을 중심으로 판단할 때 원화의 적정환율은 1/4분기중 1,130~1,170원/달러수준으로 평가됨.

-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지연, 경상수지의 불안한 흑자지속 및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외자유입이 지연됨으로써 원화환율의 실질실효환율수준으로의 접근은 99년이후에나 이루어질 전망이다.

- 단기적으로 향후 환율은 외환보유고의 양적 축적보다는 국내의 구조조정과정과 노사 문제와 관련, 개혁의지와 추진방식에 따라 외자유치가 조기에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

될 것임.

- 현재의 환율은 경상수지 개선으로 외화수요압력이 감소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절상추세를 지속할 가능성.
- 대외신인도의 조기회복을 통해 외국인주식투자 한도의 철폐, 채권시장개방 등으로 외화유동성부족이 해소되고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실질실효환율수준으로 조기에 수렴해 갈 것으로 전망.

## 제 4장

# 경제위기타개를 위한 경상수지흑자 확대 방안

### < 요약 >

- 최근 경상수지흑자가 지속되고 단기외채의 중장기전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원화가치가 다소 안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 및 기업부문의 부실화가 진행중이며 실업이 급증하고 있음.
- 현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우리 산업의 기반을 붕괴시켜 잠재성장 능력을 급속히 약화 시킴으로써 향후 선진경제로의 도약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음.
- 한국의 과잉생산능력 보유에 대한 외국의 경계심이 높은 반면, 낮은 설비 가동률로 인한 기업의 고정비용부담이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외환위기와 실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적어도 1~2년 간 현 생산설비의 가동률제고와 이를 바탕으로 한 획기적 수출증대노력을 통하여 경상수지흑자를 대폭 실현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유일한 활로임.
- 해외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환율도 안정화 되고 있어 현재의 수출관련금융의 경색이 조기에 해소되는 경우, '98년중 300억불 내외의 경상수지흑자가 예견되나, 우선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주고, 다음으로 기업들도 신규설비증설을 자제함으로써 자본재수입을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소비재 및 내수용원자재의 수입을 최소화한다면, 500억불 내외의 흑자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경상수지흑자 500억불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 첫째, 수출지원용으로 최소 50억불규모의 외화 확보,
  - 둘째,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무역어음 재할인 한도 확대 및 융자단가와 비율의 인상을 포함한 수출입금융의 지원 확대,
  - 셋째,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수출입금융지원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 넷째, 무역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경상수지 500억불 달성을 위한 국민공동추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1. 기본방향과 기대효과

## < 기본방향 >

- 최근 4~5개월간 경상수지흑자가 지속되고 단기외채의 중장기전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원화가치가 다소 안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 및 기업 부문의 부실화가 진행중이며 실업이 급증하고 있음.
- 특히, 일본 엔화 약세와 중국 위엔화 절하압력이 커짐에 따라 수출가격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흑자기조의 유지마저 위협받고 있음.
- 현상황의 장기화 또는 중장기적 해결방안 추진은 결과적으로 실물경제기반을 잠식하고 자율성장능력을 급속히 약화시켜 장기적으로도 우리 경제의 선진경제달성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됨.
- 한국의 과잉생산능력 보유에 대한 외국의 경계심이 높은 반면, 낮은 설비 가동률로 인한 기업의 고정비용부담이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외환위기와 실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적어도 1~2년간 현 생산설비의 가동률제고와 이를 바탕으로 한 획기적 수출증대노력을 통하여 경상수지흑자를 대폭 실현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유일한 활로임.

## < 기대효과 >

### 가. 가동률제고를 통한 고용의 확대

- 생산능력확대를 위한 설비투자를 자제하고 현 생산설비의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고용을 확대
  - 수출증대를 통한 설비가동률 제고를 위해서 소모성 부품의 수입증가는 불가피하나 생산능력확대를 위한 자본재수입은 최대한 자제될 수 있음.
  - 교대근무조의 확대 등을 통해 현 설비의 가동률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고용증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현재 제조업 설비가동률은 68% 이하이며 내수 물량감소가 20%에 달함으로써 30%정도의 수출물량 증가는 새로운 설비능력의 확충없이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달성 가능할 것임(부표 5).

### 나. 과잉생산능력보유에 대한 경계심 완화

- 자본재수입 감소 및 생산능력증설 자제로 한국의 과잉생산능력 보유에 대한 외국의 경계심을 완화시킬 수 있음.

### 다. 대일적자의 축소

- 자본재수입 감소로 대일적자의 축소가 가능(부표 9)
  - 제시된 방안에 의한 500억불 흑자달성의 경우, 대일무역적자는 '96년(157억불), '97년(130억불)에 이어 '98년중에는 43억불 내외로 크게 감소할 수 있음.

### 라. 대외신인도의 제고

- 500억불 흑자는 예상 GDP의 15%내외에 달하는 규모로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크게 제고
  - 대외부채중 금년에 500억불을 상환한다면 대외신인도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

## 2. 흑자전망 및 실현 가능성

### < 전망 >

- 지난해에 비해 수출이 약 220억불(15.6%) 늘고 수입은 약 320억불(-22.8%) 줄고 무역의 및 이전수지적자가 10억불 내외에 그친다면 98年中 경상수지는 지난해보다 580억불 개선된 500억불 내외의 흑자실현이 가능함(부표 1).

<표 > 국제수지 개선 전망

(억달러)

	수출	수입	무역수지	경상수지
97년(A)	1386	1425	-39	-86
98년(B)	1601	1099	502	493
B - A	215	-326	541	579

## < 실현 가능성 >

### 가. 수출

-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500대 기업의 올해 수출증가율 목표(부표 2)는 19.8%(1640억불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4분기 수출차질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연중 16.9%(1600억불 내외)의 수출증가율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

### 나. 수입

- 국제 원자재가격의 안정과 국내 설비투자의 급감경향에 수입자제 노력이 가세한다면 98연중 수입(부표 3, 4 및 6)은 지난해 보다 320억불 내외 줄어든 1100억불 내외로 억제될 수 있음.
- 원자재: 해외원자재의 안정과 내수위축으로 약 9% 내외의 수입감소 예상
  - 세계수요부진으로 1차산품(원유,가스,석탄,비철금속 등) 가격하락 예상, 특히 국제원유가가 크게 떨어져 이 부문에서 70~80억불 절감 가능(부표 8)
- 자본재: 기업의 신규 및 증설투자의 대폭 감소로 자본재수입은 지난해의 절반수준에서 자제될 수 있음.
  - 실제로 자본재도입을 위한 재원조달에 있어 외화대부, 차관, 기업의 현금과 리스자금의 활용 등에서 크게 제약을 받음에 따라 자본재도입 감축 불가피
  -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수입중 기계·장치류의 수입을 절반수준(47.4%)으로 줄인다면 이 부문에서만 60억불 내외의 절감이 가능(부표 9)
  - 전경련의 조사결과(부표 7)에 따르면, 기업들은 98연중 제조업은 42.3%, 그리고 산업전체로는 30.1%의 투자축소를 계획하고 있음.

### 다. 서비스 및 자본수지

- 서비스 및 투자수익수지는 관광 부문 지출이 현재와 같이 자제되고 이전수지가 흑자로 유지되는 경우, 외채리자지급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10~15억불정도의 적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자본수지면에서는 국내자본시장의 개방확대로 '98연중 150억불 이상의 자본도입이 예상되는 반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워 경상수지흑자분 500억불은 외채상환용으로 사용 가능할 전망

### 3. 지원방안

#### 가. 수출입금융의 확대

- 수출입 결제용 외화자금 확보
  - 수출금융 지원용으로 50억불 규모의 외화자금 확보(추후 외환보유고 증대시 100억불로 확대)(도표 1 및 부표 10)
  - \* 현재 정부는 IBRD 지원자금 등을 포함하여 30억불 규모의 자금을 수출금융 지원용으로 확보할 계획
  - \* 태국의 경우 수출지원용으로 115억불을 해외에서 확보할 계획
  
- 한국은행의 무역금융 공급 확대
  - 중소기업 무역어음 재할인 한도 확대 및 무역금융 용자단가·비율 인상
  
- 환가료 및 외환수수료 등 무역금융비용 인하 유도
  
- D/A 수출환어음 매입 및 Usance 신용장 개설(수출용 원자재 구입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수출입은행 및 산업은행에 수출금융 지원용 외화자금 일부를 배정하고 무역금융 취급 특별창구 개설
  - 유산스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360일로 연장(현재 6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360일까지 정상결제로 허용)
  
- 해외 각국의 수출지원 자금 확보
  - 원자재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외 각국의 수출입은행 등 수출지원기구에 서 공여하고 있는 수출신용을 확보

#### 나. 국책은행의 수출입금융 지원 기능 확충

- 일반은행의 수출입금융 공급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수출입금융 지원 기능 확충이 시급
  - BIS기준 충족 및 해외신용평가의 상향조정 지연에 따른 외화자금 부족 등으로 일반은행의 수출입금융 위축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산업은행의 상업금융 및 무역금융 지원 기능 확대

○ 자본금 1조원 증액(정부의 보유주식 출자)을 통해 상업금융 기능 확충 및 무역 관련 여신 기능을 확대

\* 현 납입자본금 3조 6,700억원

\* 현물출자한 자본금을 대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출받는 기업이 대출금의 일부분을 산은 보유주식 매입에 사용토록함. (예, 대출수혜 기업은 대출금의 3~5% 상당의 주식을 매입, 이경우 공기업의 국민 기업화에도 기여)

○ 매입한 수출환어음에 대한 한국은행에서의 재할인 허용

○ 거래기업을 시설자금대출 수혜업체에서 일반기업으로 확대

- 수출입은행의 자금공급 확대 및 기능 확충

○ 자본금 1조원 증액(정부의 보유주식 출자)을 통해 수출입 관련 대출·보증 증대

\* 현 납입자본금 1조 1천억원

○ 단기 무역금융업무 취급 허용

\* 현재 6개월 이하의 무역금융 취급 불허

○ 수출입 결제용 외화자금 전대 취급 허용(국제기구지원자금 일부 배정)

다. 경상수지 500억불 달성을 위한 정부지원체제 구축

- 경제부처 장관의 적극적인 수출 독려

○ 경제부처 장관의 해외 현지 마케팅 활동 강화

○ 현지 수출애로의 파악 및 정책반영 노력 강화

- 무역특별위원회 설치

○ 수출확대와 수입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인 내외의 민관합동무역위원회 (관련경제부처 장관급 3인, 민간부문 2인 내외)의 설치·가동

- 정부부문의 불요불급한 자본재 수입 자제

- 500억불 흑자 달성시 예견되는 통상마찰에 대비하여 통상외교 강화

#### 4. 부표와 도표

<부표 1> 경상수지실적 및 '98년 목표

(단위: 억불, %)

	96년	97년	98년		
			産資部	대안(A)	대안(B)
수 출	1299.7 (4.3)	1385.9 (6.6)	1475 (8.3)	1477 (6.6)	1601 (15.5)
수 입	1449.3 (12.3)	1424.6 (-1.7)	1225 (-15.3)	1158 (-18.7)	1098 (-22.9)
상 품 수 지	-149.6	-38.7	250	319	502
경 상 수 지	-230.0	-86.2	-	311	493
경상수지/GDP	-4.7	-1.9	-	9.3	14.6

\* '98년도 연평균 환율을 1400원/\$로 가정함.

\* 産資部안은 통관기준, 기타는 국제수지기준임.

\* <대안A>는 금융경색과 고금리로 인한 수출애로가 타개되는 경우 (이는 환율절하로 인한 수출증대효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임)임.

<부표2> 제조업의 '97년 수출실적과 98년 계획

(전년동기비 %, 억달러)

업종	응답업체수	'97년 실적		'98년 계획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제조업	360	706.9	6.1	846.7	19.8
경공업	109	62.3	13.4	76.2	22.2
음식료품	37	8.4	20.9	10.6	26.1
섬유 및 의복	30	41.7	13.8	51.5	23.5
가죽 및 신발	12	8.4	8.5	9.4	11.4
고무제품	9	1.6	15.0	2.0	28.8
나무제품	21	2.2	1.2	2.6	19.2
중화학공업	251	644.5	5.5	770.5	19.5
종이제품	28	15.7	10.4	17.5	11.1
화학	45	69.4	11.4	82.7	19.2
정유	4	47.2	7.1	52.0	10.2
비금속광물	33	50.1	-2.1	52.5	4.8
일차금속	37	64.5	10.8	71.6	11.0
일반기계	28	41.7	19.8	50.9	22.0
전기 및 전자	34	193.6	-7	245.5	26.8
자동차	28	128.7	5.6	155.4	20.8
조선	14	33.6	14.3	42.4	26.3

자료 : 전경련, '98년 3월 조사

○ 500대 제조업중 360개 업체가 응답하여 회수율은 72%임.

○ 360개 제조업체의 97년 수출액은 707억달러로 조사되었고 '98년에는 전년대비 19.8% 증가되는 847억달러로 나타남. 97년 제조업 총수출액(1,252억달러)중 금번 360개 조사대상업체의 점유비는 56.6%임.

<부표 3> 용도별 수입실적 및 목표

(억달러)

		'96년	'97년(A)	'98년(B)	B - A(증가율)
전 체		1503.4	1446.2	1082.1	-364.1 (-25.2%)
소 비 재		169.4	156.0	108.6	-47.4 (-30.4%)
	수출용	17.0	15.8	18.6	2.8 ( 17.7%)
	내수용	152.5	140.3	90.0	-50.3 (-35.9%)
원 자 재		745.0	762.3	695.8	-66.5 ( -8.7%)
	수출용	323.1	325.9	380.6	54.7 ( 16.8%)
	내수용	421.9	436.4	315.2	-121.2 (-27.8%)
자 본 재		589.0	527.8	277.7	-250.1 (-47.4%)
	수출용	146.2	164.3	139.5	-24.8 (-15.1%)
	내수용	442.8	363.6	138.2	-225.4 (-62.0%)



<부표 5> 제조업 가동률 추이 및 전망

( 전년동기대비, %)

	'97년	10월	11월	12월	'98년 1월	'98년 전망*
제조업생산(출하)	5.0	6.3	2.4	0.8	-7.2	3.0
내수용	1.0	0.4	-3.3	-7.5	-20.6	-7.9
수출용	16.1	23.3	18.2	22.4	28.3	28.5
생산능력	5.6	6.7	4.8	1.9	-0.4	2.0
가동률	79.9	80.6	77.3	76.2	68.3	80.7

\* '98년은 흑자 500억불 달성시 예상치

<부표 6> '98년 부문별 수입전망

(전년동기비 %, 백만달러)

구 분	'97년 실 적	'98년 전 망	증감액	증감률	감 소 요 인
축산물, 수산물	1,933	1,738	△195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부담</li> <li>· 내수침체</li> <li>· 한우육가격의 상대적 하락</li> <li>· O-157에 따른 수입육에 대한 부정적 시각</li> </ul>
농산물	6,619	6,016	△603	△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부담과 내수침체</li> <li>· 97년 원맥풍작으로 원맥 단가 하락</li> <li>· 축산농가감소에 따른 옥수수 내수감소</li> <li>· 제과 및 음료 등 연관산업의 수요부진</li> </ul>
원유 및 광 물	29,764	21,982	△7,782	△2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유도입단가의 하락에 따른 수입액 감소</li> <li>- 4월 도입물 두바이유 가격이 한자리수로 하락</li> <li>- 98년 평균도입단가를 12\$로 계상할 경우 75억\$감소(12\$*8억6천배럴=103억\$, 97년 수입액: 178억\$)</li> </ul>
화 학 제 품	11,221	9,652	△1,569	△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가동률 저하로 수입수요 감소</li> <li>· 기존 설비확장으로 벤젠, 톨루엔 등 환식탄화수소의 수입대체</li> <li>· 설비투자의 대폭적인 감소와 연관산업의 내수위축</li> </ul>
목 재, 피 혁, 플라스틱류	9,472	7,641	△1,832	△1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부담과 내수침체</li> <li>· 국내 건설경기 부진(97년 대비 33% 감소) 및 가구생산감소(97년대비 50%정도 감소전망)</li> <li>· 은행에서 수출입 L/C개설을 기피</li> </ul>

구 분	'97년 실적	'98년 전망	증감액	증감률	감 소 요 인
섬유류	5,911	4,385	△1,526	△2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심한 내수침체로 의류산업 위축</li> <li>- 내수위주인 합성장섬유는 환율 상승으로 가격부담</li> <li>· 원면수입은 내수가 부진할 것이나 수출호조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수입예상</li> </ul>
귀금속류	7,027	4,852	△2,175	△3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권의 Usance개설 기피</li> <li>· 국민들의 '금모으기 수출운동'으로 내수부진</li> <li>· 국제금값의 하락세 지속</li> </ul>
비금속 및 제품	12,969	8,100	△4,869	△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침체 및 환율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li> <li>· 전기동, 광석 등 원자재가격의 하락세</li> <li>·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과 정부 투자 축소</li> </ul>
기계, 전자	44,597	39,854	△4,743	△10.6	<p>&lt;기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부담과 내수침체</li> <li>· 설비투자 축소와 연관산업의 부진</li> <li>· 자체기술개발에 의한 수입대체 노력강화</li> <li>· 충분한 재고물량과 가동률저하</li> </ul> <p>&lt;전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는 세계반도체 수요 증가 및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 국내생산이 안되는 품목의 수입이 불가피하여 수입이 증가할 전망</li> <li>· 수출증가로 핵심부품의 수입 증가</li> </ul> <p>&lt;전기기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가격 상승으로 국산대체 증가</li> <li>· 내수위축 및 전력, 통신, 건설 등 연관수요 산업의 부진</li> </ul>

구 분	'97년 실 적	'98년 전 망	증감액	증감률	감 소 요 인
수 송 기 계	4,491	4,359	△13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부담으로 수입대체 크게 증가</li> <li>· 극심한 내수침체로 고급기종의 수입이 크게 감소</li> <li>· 국산화율 상승으로 기자재의 수입감소</li> </ul>
정밀기기, 기 타	7,728	3,864	△3,864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용이 주류인 광분석기, 측정기, 화학 분석기의 경우 수입이 50% 이상 감소할 전망</li> </ul> </li> <li>· 의료기기의 경우 국산품 대체 증가</li> <li>· 사진현상기는 국내시장 수요가 포화상태</li> </ul>
오 차 및 누락	2,884	2,884	0.0	0.0	
합계	144,616	115,327.7	△29,288	-20.3	

자료: 전경련, '98년 3월 조사('97년 100대품목을 조사하여 추정)

<부표 7> 산업별 시설투자 '97년 실적과 '98년 전망

(전년동기비 %, 억원)

	'97년(실적)		'98년(계획*)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전 산업	398,112	100.0	276,654	100.0	-30.5
제조업	277,649	69.7	160,156	57.9	-42.3
경공업	19,145	4.8	11,836	4.3	-38.2
음식료품	7,988	2.0	5,283	1.9	-33.9
섬유 및 의복	4,030	1.0	1,487	0.5	-63.1
나무 및 나무제품	1,573	0.4	1,111	0.4	-29.4
고무제품	2,906	0.7	2,061	0.7	-29.1
신발	2,648	0.7	1,894	0.7	-28.5
중화학공업	258,504	64.9	148,320	53.6	-42.6
종이 및 종이제품	7,321	1.8	2,634	1.0	-64.0
화학	32,240	8.1	18,782	6.8	-41.7
정유	23,333	5.9	10,458	3.8	-55.2
비금속광물	9,980	2.5	4,491	1.6	-55.0
1차금속	34,711	8.7	17,926	6.5	-48.4
조립금속 및 기계	9,987	2.5	7,840	2.8	-21.5
전기 및 전자	94,188	23.7	56,127	20.3	-40.4
조선	9,736	2.4	4,371	1.6	-55.1
자동차	37,008	9.3	25,691	9.3	-30.6
비제조업	120,463	30.3	116,498	42.1	-3.3
광업	777	0.2	540	0.2	-30.5
전력	87,409	22.0	90,527	32.7	-3.6
건설	10,195	2.6	5,605	2.0	-45.0
운송	22,082	5.5	19,826	7.2	-10.2

\* 산업은행의 설비투자 계획 조사(97.12)에 의하면 '98년중 외화차입금, 리스, 내부자금에 의한 설비투자는 '97년에 비하여 절대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97년중 이들 재원에 의한 설비투자 비중은 55.7%이었음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난으로 인하여 상기계획의 집행도 불투명함.

자료: 진경련, '98년 3월 조사

<부표 8> 원유도입 '97년 실적과 '98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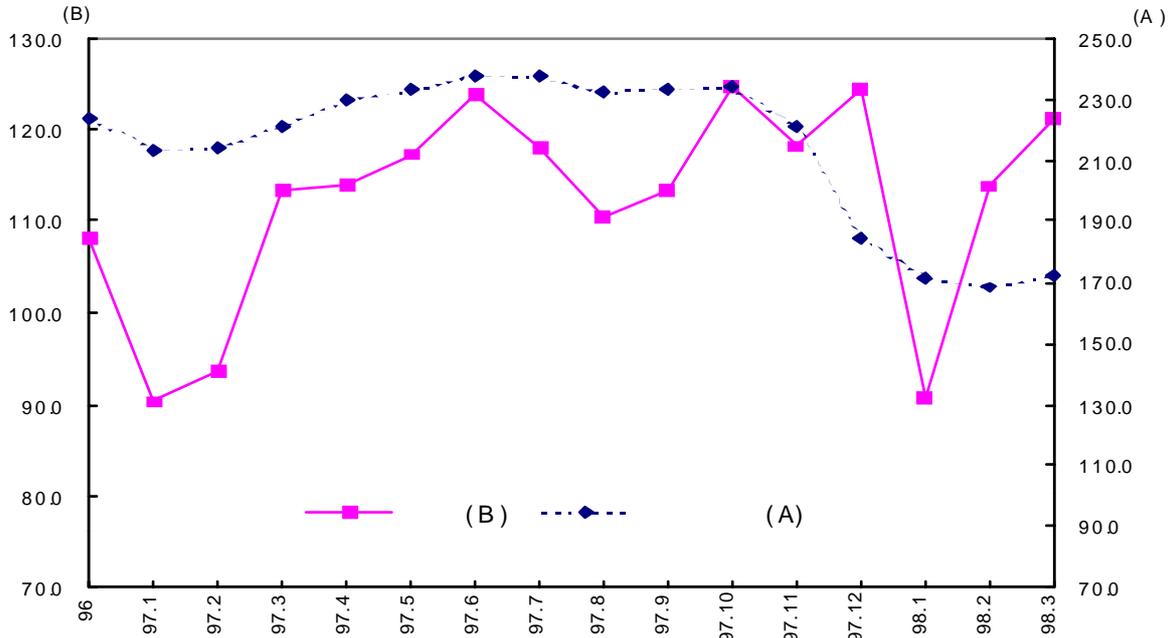
	원유도입량 (천bbl)	도입금액 (억\$,FOB기준)	도입단가(\$/b)
'96년	721,927	145.2	20.11
'97년	873,415	177.6	20.34
'98년	854,505	123.9	14.50
증감 (증감율)	-18,910 (-2.5%)	53.7 (-30.2%)	-5.84 (-28.7%)

<부표 9> 대일무역역조의 내용과 개선전망

(억달러)

년 도	'96			'97			'98			
	수출	수입	수출입차	수출	수입	수출입차	수출	수입	수출입차	
자 본 재	45.3	196.5	-151.2	44.7	169.2	-124.4	52.2	120.1	-67.9	
기 계 · 장 치 류	13.1	115.1	-102.0	12.5	88.9	-76.3	14.6	46.8	-32.2	
	부 품	30.9	76.7	-45.8	30.9	72.6	-41.7	36.1	66.3	-30.2
	소 재	1.3	4.7	-3.4	1.3	7.7	-6.4	1.5	7.0	-5.5
원 자 재	57.7	101.4	-43.7	59.8	94.1	-34.9	69.9	85.9	-16.0	
소 비 재	44.1	5.9	38.2	43.7	15.0	28.7	51.1	10.4	40.7	
총 계	147.1	303.8	-156.7	148.2	278.9	-130.6	173.2	216.4	-43.2	

<도표 1> 월별 수출과 매입 외환 잔고 추이



<부표 10> 수출금융 회전기간의 추이

	매입외환(A) <sup>4)</sup>	수출(B)	C(A/B)	수출금융 1회전기간 (월, C×12)
1993	103.5	822.3	0.126	1.51
1994	137.7	960.1	0.143	1.72
1995	185.3	1,250.6	0.148	1.78
1996	224.0	1,297.2	0.173	2.08
1997 <sup>1)</sup>	228.1	1,237.3	0.184	2.21
1998 <sup>2)</sup>	174.2	1,350.3 <sup>5)</sup>	0.129	1.55
1998 <sup>3)</sup>	274.2	1,600.0	0.171	2.06

- 1) 1997년 1월부터 11월까지 자료
- 2) 1997년 12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자료
- 3) 민간경제계의 수출목표 1,600억불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회전기간을 2개월로 늘린 경우
- 4) 매입외환(A)이란 금융기관이 매입 보유한 수출환어음 잔액(99%를 차지)임
- 5) 2)기간 동안의 수출액을 연간치로 환산한 금액임 (IMF이후 수출액\*3)

<부표 11> 한국경제의 중기전망 시나리오

(전년동기비 %, 억달러)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A	B	A	B	A	B	A	B	A	B
국내총생산	7.1	5.5	-0.5	1.7	2.9	6.9	4.2	5.1	5.9	4.8	6.5	5.0
민간소비	6.8	3.1	-3.1	-2.6	2.6	5.4	4.1	6.1	5.6	6.4	6.8	5.7
고정자본형성	7.1	-3.5	-20.2	-20.1	4.3	10.0	6.2	11.6	7.6	9.6	7.4	6.3
경상수지	-230.0	-86.2	310.5	493.2	237.1	382.7	168.1	243.4	126.0	125.0	117.1	13.6
상품수지	-149.6	-38.7	319.1	502.1	270.7	417.2	220.5	307.6	176.5	197.6	145.8	69.4
소비자물가	4.9	4.5	8.3	8.7	3.8	4.7	3.2	4.3	3.8	5.0	4.7	5.6

- 1) 시나리오 A는 수출입관련 금융경색이 해소되는 경우에 달성 가능한 기본전망(Base line Forecast)임.
- 2) 시나리오 B는 500억달러 흑자 달성 시나리오에 의한 대안적 전망(Alternative forecast)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가짐.
  - 시나리오 A는 금융·재정 긴축정책에 의해 초년도('98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점차 회복되어 제5차년도(2002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진입하고 있음에 비추어, 시나리오 B는 초년도에 내수와 수출간 수요전환을 통하여 대폭적인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99년이후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시현하는 확대균형적 경제 운영 방안임.
  - 시나리오 B의 실현은 초년도('98년)의 대폭 흑자실현을 위한 정부의 총력수출지원 체제와 기업의 자본재수입 자제노력이 관건이나, 일단 500억불 흑자가 실현되면 점차적으로 자본재의 수입대체와 수출입 수요구성비 등 경제구조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지속가능한 흑자구조가 정착될 수 있음.
- 3) 시나리오(A)와 (B)에 사용된 주요 가격변수는 다음과 같다. 단 시나리오 (B)는 추가 흑자중 1/2은 환율절상으로, 1/2은 불태화(Sterilization)에 의해 흑자에 의한 통화증발요인을 흡수하는 거시정책조합을 가정한 결과임..

	'96	'97	'98		'99		'2000		'2001		'2002	
			A	B	A	B	A	B	A	B	A	B
총통화(%)	16.2	19.3	13.9	14.7	14.7	17.8	13.8	16.4	13.5	14.6	13.5	13.7
환율(₩/\$, 기말)	844	1415	1350	1340	1280	1250	1210	1170	1150	1100	1100	1060

\* 경제정책정보 \*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1/3	한국은행	○ 예금보험기금채권 인수(한국은행의 주요 조치사항 참조) -인수금액:총 6조5천억원(1월3일:3조원, 1월21일:1조원, 1월23일:1조원, 1월30일:1.5조원)
	재정경제원	○ 포지션한도 관리대상 조정 -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환어음 매입시 발생하는 외화매입분에 대해 포지션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
	통상산업부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확대 -ADB차관자금 10억달러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
1/13	재정경제원	○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제출 -98년 중 한국은행이 외국 중앙은행에 대한 차입금(80억달러, 3년이내), 국내 외국환은행의 해외차입금(70억달러, 5년이내)에 대해 국가가 보증
1/15	한국은행	○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요청 및 자본금 감소명령(한국은행의 주요 조치사항 참조)
1/17	재정경제원	○ 말레이시아산 중질섬유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부과기간:1998.1.17~2001.1.16(3년간) 관세율:공급자별로 7.02~33.11%
	건설교통부	○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착수
1/24	통상산업부	○ LNG 및 LPG 가격 조정 -천연가스(LNG)의 도매가격을 13.6% 인상하고, 액화석유가스(LPG)는 프로판가스의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7.2% 인상
1/26	한국은행	○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 변경 -총한도의 50%는 종전 방식대로, 나머지 50%는 월중 신규 취급실적 기준으로 하되 1월중 취급실적부터 반영 ○ 여신금지제도 폐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시 계열회사의 과도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행위 금지 -금융기관이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거나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1/29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만기연장에 대한 기본합의 타결</li> <li>-98년중 만기 도래하는 1년 미만의 단기외채를 정부의 지급 보증을 통하여 만기 1,2,3년의 중장기 외화채무로 연장</li> <li>-기준금리는 Libor로 하고, 가산금리는 각각 1년 만기 2.25%, 2년 만기 2.50%, 3년 만기 2.75%로 결정</li> <li>-2~3년 만기의 경우 6개월 경과 후부터 조기상환 가능</li> </ul>
1/30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li> <li>-제일·서울은행에 대하여 각각 7,500억원 현물(한국전력공사 및 담배인삼공사 주식)출자</li> </ul>
2/2	영국 피치 IBCA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국가신용등급 5단계 상향조정(B→BB+)</li> </ul>
2/8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시장 안정 및 단기금융시장 개방계획 발표</li> <li>-기업어음시장 및 은행대출 활성화(CP할인업무 전은행 허용 등), 단기 수신금리 인하, 회사채시장 활성화(대기업의 3년미만 회사채 발행 98년말까지 허용 등), 단기금융상품 시장 개방(CP, 상업어음, 무역어음시장 개방 등)</li> </ul>
2/11	증권거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가 일일변동폭 확대 발표(3.2 시행)</li> <li>-상하8%→12%</li> </ul>
2/17	IM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억달러 지원 승인</li> </ul>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개 중금사 인가 취소</li> <li>-한화,쌍용,경남,고려,삼삼,항도,청솔,신세계,경일,신한</li> </ul>
	미국S&P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국가신용등급 3단계 상향조정(B+→BB+)</li> </ul>
2/19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액대출한도 1조원 추가 확대(3.2시행)</li> <li>-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종전 4조 6,000억원에서 5조 6,000억원으로 확대</li> </ul>
3/16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외채 만기연장 협상 결과 발표</li> <li>-만기연장액:218.39억달러(3.11현재 대상채무대비 94.8%)</li> </ul>
3/17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년 국민계정 (잠정)발표</li> <li>-경제성장율:7.1%(96)→5.5%(97)</li> <li>1인당GNP:10,543달러(96)→9,511달러(97)</li> </ul>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3/23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일종금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정지기간: 3.23 ~ 4.30</li> </ul> </li> <li>○ 업무정지 종합금융회사의 예금 지급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대상: 2.26일 추가로 업무정지된 대구, 삼양종금의 개인 및 법인예금과 기업무정지중인 15개 종금사의 금융기관예금 중 3금융권(은행, 증권, 투신, 보험, 종금, 금고)을 제외한 금융기관예금</li> <li>- 지급기관: 3.24일부터</li> </ul> </li> </ul>
3/27	세계은행 (IB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 대한 1차 구조조정차관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억달러 차관액에 이자율은 리보+0.75%로 15년 (거치기간 5년 포함)동안</li> </ul> </li> </ul>
3/30	Moody's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장기신용 등급(Ba1)전망 상향조정: Review for Possible Downgrade(1.9일 지정)→Stable</li> </ul>
3/31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투자업종개방 확대(4.1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개방: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 증권거래업, 골프장운영업, 곡물도정업(7개업종)</li> <li>- 부분개방: 선물거래업(1종)</li> <li>- 개방범위확대: 투자조합, 유선방송업(2종)</li> </ul> </li> </ul>
4/8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대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관련법령 전면 개편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능 개편과 외국인전용공단 입주자격 기준완화,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적극전개를 주요 내용으로 함</li> </ul> </li> </ul>
4/9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해외채권 발행결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계획보다 10억달러 초과한 총규모 40억달러규모의 글로벌본드 형식으로 발행 성공(4.8)</li> <li>- 만기5년: 10억달러(TB+345bps), 만기10년: 30억달러(TB+355bps)</li> </ul> </li> </ul>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4/14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만기연장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4.8일부터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 단기외채 중장기채무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장대상으로 확정된 금융기관 단기외채 218.36억달러에 대해 정부지급보증을 개시</li> <li>- 지급보증대상금융기관:33개은행 및 9개 종금사</li> </ul> </li> <li>○ 종금사 인가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13일 삼양종금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4.15일 인가 취소</li> <li>- 업무정지중인 제일종금의 원리금 보호대상예금 중 개인예금에 대하여 4.20일부터 원리금 우선 지급</li> </ul> </li> </ul>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 발표(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제일은행의 정부소유주식의 조기 매각, 대형·우량금융기관간 합병유도,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대폭확대추진, 기업구조조정기금설립, 기업보유부동산 매각촉진을 위한 세제·개발부담금 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li> </ul> </li> </ul>
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개시</li> </ul>

◀주요 경제동계▶

경제성장률 소비 투자

연월	경제성장률		1인당 GDP	소비		투자		
	GDP	제조업		민간	정부	총고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US \$	전년동기 대비(%)				
1991년	9.1	9.1	6,757	9.5	9.5	12.6	12.1	13.0
1992년	5.1	5.1	7,007	6.6	7.6	-0.9	-1.1	-0.6
1993년	5.9	5.0	7,494	5.7	3.0	5.2	-0.1	9.9
1994년	9.6	10.5	8,467	7.6	4.2	11.9	23.6	4.5
1995년	9.9	10.9	10,037	9.3	1.0	11.7	15.9	9.7
1996년	7.1	7.4	10,543	6.9	7.9	7.1	9.3	6.1
1997년	5.5	6.2	9,511	3.1	5.7	-3.5	-11.3	2.7
1997년1/4	5.7	5.7	-	4.2	5.1	0.3	-0.2	0.9
2/4	6.6	7.2	-	4.9	6.9	0.2	-1.9	1.9
3/4	6.1	7.5	-	4.9	7.2	-3.7	-12.7	3.9
4/4	3.9	4.6	-	-1.9	4.9	-9.9	-29.2	3.7

무역 · 국제수지

연월	무역				국제수지		외환보유 액 <sup>1)</sup> (기말)	대미관종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린/달러	
1991년	719.7	10.5	815.2	16.7	-69.0	-83.2	137.3	760.9
1992년	766.3	6.6	817.9	0.3	-17.6	-39.4	171.5	799.4
1993년	822.4	7.3	839.0	2.5	23.2	9.9	202.6	899.1
1994년	960.1	16.9	1,023.5	22.1	-29.6	-39.7	256.7	799.7
1995년	1,250.6	30.3	1,351.2	32.0	-44.4	-85.1	327.1	774.7
1996년	1,297.2	3.7	1,503.4	11.3	-149.7	-230.1	294.2	944.2
1997년	1,366.3	5.3	1,446.4	-3.9	-39.9	-85.2	99.7	1,415.2
1997년10월	124.6	5.2	125.9	-7.9	-1.9	-6.6	223.0	955.1
11월	119.3	3.9	117.1	12.4	4.6	4.9	72.6	1,163.9
12월	124.3	1.7	102.2	-24.9	24.0	34.6	99.7	1,415.2
1998년 1월	90.2	-9.2	75.3	-39.9	20.7	30.9	123.6	1,571.9
2월	112.5	29.1	90.1	-30.3	39.6	40.5	195.4	1,640.1
3월	120.6	6.5	93.9	-35.9	-	-	241.5	1,379.9

주: 최근 데이터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96년 이후는 가용외환보유액

물가·실업·이자율

연월	물가 <sup>2)</sup>		실업률	제조업 업종업률	통화 <sup>3)</sup>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99.1.4=100
	생산자	소비자			M2	MCT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연% 명근	기간명근	
1991년	4.7(1.9)	9.3(9.2)	2.3	16.9	19.6	24.5	19.9	657.1
1992년	2.2(1.6)	6.3(4.6)	2.4	15.7	19.4	24.7	16.2	597.2
1993년	1.5(2.0)	4.0(5.0)	2.0	10.9	19.6	22.9	12.6	729.2
1994년	2.0(3.9)	6.2(5.6)	2.4	15.5	15.6	23.5	12.9	965.7
1995년	4.7(3.4)	4.5(4.7)	2.0	9.9	15.5	21.6	13.0	934.7
1996년	2.7(3.5)	4.9(4.9)	2.0	12.2	16.2	21.7	11.9	933.4
1997년	3.9(10.9)	4.5(6.6)	2.6	5.2	19.3	15.3	13.4	652.9
1997년10월	2.1	4.2	2.1	5.5	17.9	13.0	12.5	594.1
11월	2.9	4.3	2.6	2.4	19.5	13.3	14.1	494.1
12월	10.9	6.6	3.1	-12.6	21.5	14.7	24.3	390.3
1998년 1월	15.2	9.3	4.5	-	16.4	12.7	23.4	475.2
2월	17.7	9.5	5.9	-	14.1	10.5	19.0	525.2
3월	17.5	9.0	6.5	-	13.9	9.6	19.9	523.0

주: 2) ( )는 전년말대비증가율. 3) 명한기준

산업활동

연월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 업	명근가 동률(%)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 <sup>4)</sup>	국내기 계수주 <sup>5)</sup>	기계류 수입 <sup>6)</sup>	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전체	공업용	주거용
전년동기대비(%)										
1991년	9.6	79.5	0.9	11.3	2.2	19.0	22.0	-9.7	6.7	-16.7
1992년	5.9	79.3	5.5	5.3	-5.2	-10.6	9.0	-10.0	-12.4	-7.4
1993년	4.4	77.9	0.5	3.9	12.1	1.1	19.3	24.5	15.2	26.7
1994년	10.9	91.3	0.7	9.3	26.9	37.6	19.5	-1.3	16.0	-0.5
1995년	12.0	91.0	0.0	7.4	15.0	31.5	24.4	1.0	3.3	-1.2
1996년	7.3	91.0	7.0	5.9	16.5	-0.7	21.4	-3.0	-13.2	-2.5
1997년	4.0	79.9	3.2	-1.5	3.3	-22.0	4.7	-0.4	-26.2	2.6
1997년10월	9.2	90.6	3.9	0.5	4.6	-23.7	50.5	12.7	-20.6	23.2
11월	4.3	77.3	1.0	-4.2	-33.6	-39.7	-23.3	3.2	-39.9	-1.5
12월	3.0	76.1	-4.9	-9.2	-10.0	-50.0	-35.1	19.3	-25.0	31.0
1998년 1월	-10.0	67.0	-0.7	-10.5	-31.1	-55.3	-19.3	-16.0	-65.9	12.2
2월	-1.7	69.0	-11.4	-10.4	-20.0	-46.4	-19.9	-7.3	-62.9	9.0
3월	-10.1	65.2	-10.6	-21.7	-50.6	-55.2	-29.6	-30.6	-71.6	-24.0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제외 6) 94년 이전 수치는 선박제외